

□ 정부시책 □

산업기반기금 3,916억 支援

산업자원부는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5개 분야에 총 3,91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을 공고했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의 경우 경쟁력약화 산업의 노후시설 개체, 시설 자동화 및 제품개발, 신기술 보급확대 등을 위해 올해 총 1,26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유통합리화 분야는 유통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770억원이, 환경친화적산업 기반조성 분야는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환경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60억원이 지원된다.

또 산업단지활성화 분야는 조건부·무등록 공장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 730억원이 지원되며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분야는 광속거래(CALS)체계 도입·구축 및 엔지니어링·영상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1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우선지원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며 시설자금에 한정하고 있는 자금용도도 최근의 중소기업체들의 자금난을 감안, 30%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출완료 기한이 짧아 용자사업자의 대출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막기 위해 대출완료 기한을 용자사업자로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1차에 걸쳐 2개월 연장하던 것을 6개월 이내, 2차에 걸쳐 4개월 연장 가능토록 변경했다. 용자금리도 최근 실세금리의 상승을 감안해 일반사업은 현행 6.5%에서 8.5%로, 기술담보는 7.5%에서 9%로 용자금리를 인상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난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범위내에서 기 대출된 자금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환사업을 신설하고 기능별 지원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등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일부 지원부문을 변경해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원하던 염색가공 분야를 생산성 향상으로 지원하고 신기술보급 사업의 지원대상에 우수재활용(GR)마크 획득제품을 포함시켰다.

산업기반기금 사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해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물류·입지·환경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376억원이 지원됐으

며 올해에는 기대출된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대환사업 500억원을 포함해 자금규모가 3,916억원으로 확대됐다.

▲ '98 산업기반기금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128,600
- 생산성향상	58,500
- 고부가가치화	33,100
- 신기술보급	37,000
2. 유통합리화	77,000
- 유통정보화	6,000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29,000
- 물류표준화	18,000
- 물류공동화	14,000
- 집배송센터건립	10,000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46,000
-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 투자	39,000
- 환경설비생산 지원	7,000
4.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17,000
- CALS/EC체계 도입 구축	1,000
-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육성	7,000
5. 산업단지 활성화	73,000
-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	50,000
- 산업단지합리화	23,000
6. 대환사업	50,000
계	391,600

기술담보 용자 자금 취급 확대

산업자원부에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현물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용자해 주는 기술담보 사업을 올해부터 크게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술담보사업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기술(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술담보사업을 크게 확대 시행키로 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97년 11건에 29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올해는 90건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자금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최고 300억원(150개 기업 지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98년 2월 전국 은행관계자 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담보제도를 은행권에서도 과감하게 도

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은행이 기술담보사업에 참여키로 약속함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어느 은행에서든지 기술을 담보로 하여 사업화 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술을 담보로 기업이 용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단지활성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산업기반기금(취급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계공업진흥회등 15개 기관)과,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용자자금(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취급기관 : 기계공업진흥회, 산업기술정책연구소등 8개 기관) 등이며, 기술담보사업은 기술의 수명주기 및 가치를 미리 평가받아야 하므로 기술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연락처 : 전화번호 829-8723, 기술담보실)로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요청하여 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를 발급받아야 은행용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지원제도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절차 간소화등 운용절차를 더욱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기술개발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가동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등 기술개발사업 추진부처의 증가에 따라 검색인력 소요 및 검색시간이 크게 증가되는 것에 대비,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과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

산업자원부는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관장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지원규모 3,000억원) 지원업체와 자본재시제품 개발용자금(지원규모 3,500억원) 지원업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방식에 의한 상호 중복 확인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97. 3월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연구관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소등 9개 기관이 모인 연구관리전문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시스템 구축계획 및 협조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 계획에 의거 지난 2월까지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정보통신연구관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5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의 시험가동이 완료된

으로써 올해부터 정부지원 기술개발자금의 중복 지원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의 전산검색시스템은 각 자금지원기관별로 개발기관, 개발책임자, 과제명, 개발기간, 개발목표 및 내용 등 9개 필수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한 후 신규 신청과제에 대해 컴퓨터가 사전입력된 과제의 9개 정보자료를 토대로 1對多방식으로 상호 비교분석하여 과제명 및 개발목표 등 동의어가 50% 이상 반복되면 유사한 중복 과제로 출력하는 것이며, 출력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기존과제의 기술내용과 신규과제의 개발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여 직접 검증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의 검색전산망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건설기술관리센터,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여타의 연구관리기관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기술전수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지원하여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은 어디에서도 중복 지원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검색시스템 가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과거에 지원된 정부자금에 대해서도 중복지원 여부를 검색키로 하고

동일사업에 대해 고의로 중복 지원받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정부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지원자금을 유용하거나 불법사용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자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산업자원부는 최근 IMF 체제를 조속히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어 왔던 국내 민간 발전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기업 보호를 위하여 「증권거래법」 및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분을 50% 미만에 대해서만 허용되었으며, 외국인은 합작법인의 대표나 제1주주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가 상당폭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국내기업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확대로 외환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환율을 낮추고 민간 지출을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국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 전력사용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외국인투자 개방의 대상은 민간법인이 발전사업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공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증권거래법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계속하여 25% 이내로 제한되도록 하였다.

금번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으로 향후 201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2기 약 1조2백 원, LNG복합화력발전 11기 약 2조5천억원, 양수발전 2기 약 3천억원 등 전체적으로 약 3조8천억원 규모(25억 3천만달러 상당 : 환율 1,500원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발전시장이 개방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들어 국내발전시장에는 미국의 TEXACO, 벨기에의 TRACTEBEL, 프랑스의 TOTAL사 등 세계의 우수한 전력전문기업들의 참여 움직임이 있어 왔는 바, 금번 조치로 인하여 이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자본유입은 대폭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

산업자원부는 최근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업체들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외화표시 보험계약체도의 도입 및 부보율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해외공사 또는 플랜트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이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 등 제반 보증서를 발급할 때 수출보험공사와 외화표시로 보험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어 보증서의 대외공신력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환율변동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업체에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포괄보험 부보율(사고시 보상율)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보험금 지급요건도 현행

수출자의 귀책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단축하여 그만큼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투자후 비상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해외투자 보험의 담보범위를 현행 천재·내란·환거래 정지시에만 보상하던 것을 피투자국 정부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조치로 인하여 수출보험의 보증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국내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해외발주처들이 국내 시중은행의 보증서를 거부하는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8년 집단에너지사업 자금지원 계획 확정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

너지사업의 '98년에 특 지원자금을 '97년 대비 22.9% 증가한 1,780억원으로 확정하고 사업별로 지원키로 했다.

금년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자금 배정의 기본방향 및 세부내역은 첫째,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사업에 대한 중점 지원에서 지역난방사업의 지방확대를 위해 수원, 청주, 안산, 김해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에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규모도 전년 대비 37.1%(395억원)를 증액 배정했다.

둘째,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전년대비 20% 증가한 300억원으로 높여 책정하고 울산 석유화학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대전 3·4 공단에는 2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97년까지 집단에너지사업에 총 1조 167억원을 투입하여 신도시 및 공업단지에 대한 근원적인 에너지절약 Infra를 구축하였으며 그결과, '97년말 현재 지역난방보급율은 전국 가구대비 7.1%로 74만여호에 지역난방이 보급되고 있으며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등 16개 지역에 달한다.

또한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은 울산, 여천 공업단지 등 13개 공업단지에 16개 사업자가 공정용 증기 및 전기를 생산하여 개별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97년 국내 총에너지 사용량(143,286천TOE)의 1.1%에 해당하는 1,571천TOE의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국내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완화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98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실행 계획

I. 목 적

본 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수립된 『에너

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개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98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주요내용 (에너지절약기술 분야)

- 기본목표 : 2006년 기준 최종에너지의 10% 절감
 - 에너지사용량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절약잠재량이 우수한 기술을 중심으로 효율향상 목표치를 설정한 후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 2006년 기준으로 국가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10%(20백만 TOE)를 절감
- 기술개발 대상
 -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우수하고 현 기술수준에서 개발 가능성이 큰 고효율공업로 등 12개 프로그램을 중점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2006년 에너지절약 목표 10%중 7%를 중점기술개발사업에 의해 달성
 - 중점추진분야 이외 고효율저공해 차량기술등 21개 프로그램은 단기간내 실용화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기술개발 전략
 - 각 프로그램별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기술개발 전략 수립
 - 중점 및 일반추진분야에 각각 사업단과 연구회를 운영하여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에너지절약 기술선도국과 국제공동연구(한-호) 및 기술협력 강화
 -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진흥사업 추진
 - 특정연구지원사업 및 시범적용사업의 실용화 촉진 강화

II. 지원실적

1.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91~'92	'93	'94	'95	'96	'97	계
과제수	신 규	27	95	60	34	73	82	371
	계 속	3	4	65	81	44	76	273
	계	30	99	125	115	117	158	644
사업비	정부지원	3,937	9,317	14,161	16,762	19,098	21,935	85,210
	민간부담	728	8,236	7,173	7,766	8,612	9,900	42,415
	계	4,665	17,553	21,334	24,528	27,710	31,835	127,625

2. 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92		'93		'94		'95		'96		'97		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중 점	-	-	-	-	-	-	-	-	-	-	17	2,460	17	2,460
일 반	15	759	98	9,243	117	11,354	108	13,902	99	13,738	114	15,550	551	64,546
특 성 화	15	3,178	1	74	8	2,807	7	2,860	18	5,360	16	3,675	65	17,954
학술진흥	-	-	-	-	-	-	-	-	-	-	11	250	11	250
계	30	3,937	99	9,317	125	125	115	16,762	117	19,098	19,098	21,935	644	85,210

Ⅲ. '98 일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
상과제 선정

1. 추진방법

- 에너지절약기술 분야별 연구회를 통해 기술개발 대상과제 도출
- '98 에너지절약 일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이 유망한 기술을 검토한 후 실행계획에 반영

2. 지원대상

- 산업·요로금속·건물·수송·전기 등 8개 프로그램

분 야 명	프 로 그 램 명
산 업	· 고효율 염색가공설비
	· 고효율 연소시스템
요로금속	· 기능성 에너지소재
건 물	· 건물에너지 관리기술
수 송	· 고효율 저공해 차량
전 기	· 전력변환
	· 전열
	· 초전도 전력기술

3. 분야별 제안과제 검토결과

- 연구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98예산, 개발 목적 및 기술현황분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7개 제안과제중 30개 과제는 일반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

분 야 명	산 업	요로금속	건 물	수 송	전 기	계
제 안 과 제	15	9	9	9	25	67
공 모 과 제	9	4	5	5	7	30
구 성 비 (%)	30.0	13.3	16.7	16.7	23.3	100

IV. '98년도 실행계획

1. 기본방향

-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점추진분야와 일반 추진분야 및 특성화분야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 추진
- 사업단·연구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기술 개발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신규과제 발굴수단으로 활용
- 예산 배정(정부지원금)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하부구조 확충을 위한 학술진흥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
- 시범적용사업의 실용화 추진

2. 지원규모

- 예산 규모 : 총 222억원
 -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168억원
 - 한전 출연금 50억원
 - 가스공사 출연금 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속 과 제	신 규 과 제	계
중점기술개발사업	2,470	4,005	6,475
일반기술개발사업	10,657	3,128	13,785
특성화사업(ECDP)	400	1,000	1,400
학술진흥사업	250	250	500
계	13,777	8,383	22,160

☞ 추경편성으로 인한 감액등 추후 재조정

3. 추진 계획

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점기술개발사업, 일반기술개발사업, 특성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중점기술개발사업
 - 대상분야 : 산업, 요로금속, 건물, 수송, 전기분야 12개 프로그램

분야명	프로그램명
산 업	· 고효율 건조기
	· 공조시스템
요로금속	· 에너지변환· 축적시스템
	· 분리기술
	· 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건 물	· 고효율 공업로
	· 보급형 에너지절약 건물
전 기	· 집단에너지
	· 소형열병합발전기술
	· 고효율 전동기
	· 고효율 조명시스템
	· 전동력응용기술

- 추진방법 : 9개 사업단과 3개 연구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기술체계도와 연계·검토후 '98 중점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일반기술개발사업

- 대상분야 : 산업, 요로금속, 건물, 수송, 전기분야 8개 프로그램(고효율 염색가공설비, 고효율 연소시스템, 기능성 에너지소재, 건물에너지 관리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 전력변환, 전열, 초전도 전력기술)
- 추진방법 : 8개 연구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기술체계도와 연계·검토후 도출된 단기 실용화 기술을 공모하여 평가후 선정지원

○ 특성화사업

- 대상분야 : 특정연구지원사업, 성공조건부연구사업
- 추진방법
 - 특정연구지원사업 : 산업, 요로금속, 수송, 건물분야 과제관리 및 사업종료후 실용화 방안 검토
 - 성공조건부연구사업 :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기술개발대상 선정후 기업간 경쟁방식으로 추진(에너지효율 등급표시기자재 대상)

나. 사업단·연구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기술개발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신규과제 발굴수단으로 활용

○ 사업단 운용

- 12개 중점 프로그램중 '97년도에 구성된 9개 사업단은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확립
- 3개 연구회(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집단에너지, 전동력응용)는 신규 사업단으로 전환 검토
- 주요기능
 - 해당 프로그램의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 연도별 공모대상 과제발굴 및 제안
 - 해당 프로그램의 연도별 추진 실적 보고서 작성 및 자체평가 실시

○ 연구회 운용

- 21개 일반 프로그램중 '97년도에 구성된 8개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 5개 프로그램(구조용 에너지소재, 건물외피단열, 고효율 차세대 엔진, 가전사무기기, DSM 정책 및 보급지원)을 신규 연구회로 추진
- 잔여 8개 프로그램은 '99년도에 연구회 결성 예정
- 주요기능
 - 해당 프로그램의 기술현황 분석에 의한 과제도출 및 제안
 - 해당 프로그램의 연도별 활동보고서 작성
 - 에너지절약기술과 관련한 학술교류 활동

다. 기술개발 하부구조 확충을 위한 학술진흥사업,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학술진흥사업

- 계속과제의 중간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통하여 학술진흥사업 홍보
- 연구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일반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 추진하여 학술진흥사업의 활성화 유도

○ 국제공동연구사업

- 양국간 기술협력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중 에너지절약 관련 한·호 국제협력사업

라. 시범적용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술개발성과 실용화를 추진

○ 대상기관 : 에너지절약기술을 보유한 정

부출연 연구소,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관기관 또는 해당기술의 실시기관

○ 대상분야 : 정부지원에 의해 Pilot Plant 연구단계까지 성공한 에너지절약기술로서 범용성과 보급잠재량이 우수한 기술

○ 추진방법

- 기업의 참여로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 사업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능평가 시험 강화
- 설치현장 평가를 통한 직접평가 실시
- 사업성과의 홍보를 강화하여 실용화 보급 유도